

전국체전, 전남도민 응원단 함께 댈다

경기장 환경 정비·질서 확립 등 역할...7월 28일까지 4200명 모집

전남도가 오는 7월 28일까지 10월과 11월 개최하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도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과 감동체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댈 도민 응원단을 모집한다.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22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4200명의 도민 응원단은 오는 9월부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끝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도민 응원단은 경기장별 경기 관람과 열띤 응원으로 참가 선수단의 사기를 높여 활기찬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장 환경 정비, 올바른 경기 관람 문화 정착 캠페인, 체전 홍보 등 기초질서 확립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남도는 도민 응원단에 응원 용품을 지원하고 응원 참여 시간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대회 종료 후에는 우수 응원단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도 할 방침이다.

도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과 감동체전을 위해 전남도와 도교육청, 도체육회, 3개 기관은 도민 응원단과 함께 학생 응원단과 체육단체 응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학생 응원단은 지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운영을 주관하며, 현장 체험학습이나 동아리 활동 형태로 경기 관람과 응원활동을 펼친다. 체육단체 응원단은 도체육회 주관으로 생활체

육인 등을 모집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종목에 응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따뜻한 배려와 열띤 응원으로 스포츠 대추제를 빛내줄 주인공인 도민 응원단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배수개선사업 25곳 선정 안정적 영농 환경 만들기 최선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에 기본조사·신규 착수 등 25개소가 선정돼 올해 기본계획 수립·세부설계 등에 착수한다. 기본조사는 전국 73개 지구 중 전남이 14개 지구 1647ha, 신규 착수지구는 전국 55개 지구 가운데 11개 지구 1836ha(사업비 1326억원)가 선정됐다.

배수펌프장, 배수로, 저류지 준설 등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안정적 영농활동이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량이 증가하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농경지가 침수돼 농작물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있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50ha 이상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를 전액 국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경지가 많고 태풍 출몰이 잦은 전남에 필요하다.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된 14개 지구는 나주 영산, 광양 금이, 담양 성일, 고흥 내봉, 보성 고읍2, 화순 도곡2, 강진 도암, 해남 고천암2와 산이2-1, 영암 방축, 무안 석용, 함평 용흥, 진도 명금과 지산 지구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실시설계가 추진된다.

또 신규착수 11개 지구는 나주 세지, 보성 덕산, 해남 고천암3, 영암 독촌·금강태백, 무안 금산2, 함평 제동, 영광 하사, 장성 우치, 완도 세동, 진도 고야 지구다. 올해 현황조사와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하게 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 안정적 영농 경영을 하도록 영농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예산 693억원을 들여 여수 등 18개 시·군 42개 지구를 추진 중이고, 우수기 전까지 배수펌프장, 배수로 등 중점 관리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업무협약



재단법인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지난 3월 30일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 청소년기관(단체)과 협약을 맺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부문 5개소, 청소년지도자 동아리 부문 8개소, 청소년활동 동아리 부문 30개 동아리, 청소년정보 수집체계 부문 8개소 등이 이날 협약을 맺었다.

향후 재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결과보고회와 사례집 제작을 통해 지역 청소년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양미란 재단 원장은 "전남도내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이 여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해 성장하면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6월 2일까지 공모

전남도는 도시 품격 향상과 건축문화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2023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선정' 출품작 접수한다.

신청 대상 건축물은 건립 시기와 관계없이 전라도 내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기관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6월 2일까지 서류를 갖춰 전남도 건축개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작은 전남도 총괄 건축가, 공공건축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와 현

장 심사를 거쳐 10월께 10개 내외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만들고 사람이 머물고 찾아오게 하는 힘이 있다"며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가치와 의미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도록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는 전남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도시 품격과 도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주 4·3사건 공감...여순사건 방향 논의

전남도, 제주서 워크숍...추념식 참석, 진실규명·명예회복 최선



전남도가 지난 2~3일 제주도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화합워크숍'을 개최하고 제주 4·3사건 유족의 아픔을 공감하며 여순사건이나 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

여순사건 유족회, 실무위원회 위원, 여순사건위원회지원단과 시군 등 3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은 제주 4·3 평화공원, 너른송이 기념관 방문과 제75주년 4·3사건 추념식 참석 일정 등으로 운영됐다.

윤연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통감했다"며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유족, 사회단체, 지자체 등 전 도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기능경기대회 개막...7일까지 경연

전남도내 숙련 기술인의 대추제인 2023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가 3일 순천공고에서 개막, 5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기능경기대회에는 순천공고 등 9개 경기장에서 323명이 참가해 각 직종별 기술 경연을 펼친다.

참가 종목은 자동차 정비, 그래픽디자인, 산업용 드론제어, 제빵, 피부미용 등 37개 직종이다. 직종별 금·은·동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된다. 또 10월 14일부터 총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7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전남 대표로서 참가 자격이 주

어진다. 지난해 전남도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총 100명의 선수가 출전해 CNC/밀링과 자동차 페인팅 직종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고 그 외 종목에서는 7, 동 4, 우수·장려상 27명 등 총 40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966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우수한 숙련 기술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선취업-후학습'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10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의 창업 초기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2023년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창업을 했거나 올해 6월 30일까지 창업 예정인 자활기업이다.

올해 6차례로 나눠 모집·지원하는 '2023년 자활기업 창업자금'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업 후 1회 지원하는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운영자금, 임대보증금, 근로유지성자금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창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은 점포 임대를 위한 보증금을 최대 3억원을 무이자 용자 지원한다. 1억원까지는 최대 5년간 분기별 20회 분할 상환조건이며, 1억원을 초과하면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근로유지성자금 지원은 창업 당시 수급자 및 차상위자 구성원을 6개월 고용 유지하면 100만원, 12개월 유지하면 100만원 등 총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전남 기업은 총 7개소로 운영자금 7건, 5억9900만원과 임대보증금 2건 5000만원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이기원 지음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